

한-독 기술교류 탄소중립 이끌 첫 걸음

탄소진흥원·탄소나노산업협회, 경량소재 네트워킹데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회장 박종수)는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한-독 경량소재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독일연방 경제기후보호부와 기계 및 플랜트협회, 비텐-뷔르템베르크주 경량 네트워크 등 독일 내 복합소재 분야 기업 및 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네트워킹 데이는 양국간 경량기술 매칭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첫 번째 협력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탄소복합재 등 경량소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 기업들을 초청해 건설, 항공, 모빌리티 등 분야별 선도 기술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간 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간 기술교류 세미나에서 레나 올베 독일 비텐-뷔르템베르크주 경량 네트워크 협회 국제 비즈니스 담당자는 독일의 경량화 기술과 3,000여개의 경량 기술 분야 기업 및 연구소가 이루어진 산업 클러스터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탄소기업들과 독일의 산업 클러스터 간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경량 기술 개발 및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울섬유 채철수 부사장은 탄소섬유의 모빌리티 내장재 및 건축구조물 보강재 적용 기술을 선보이며 "탄소중립을 위한 유럽의 환경 규제 등에 맞춰 재생탄소섬유의 활용, 고성능 경량 섬유소재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츠항공 김경수 전무는 국내 항공용 탄소 복합재 적용 기술을 소개하면서 누리호 동체 등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 UAM 등 우주·항공 분야에서 더욱 성장하게 될 탄소복합재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이슈와 더불어 정부의 우주·항공분야 육성 기조에 따라 고성능 경량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소재 공급망 확보 등 경제인보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체계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소소재의 경우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 산업 곳곳에서 제품의 성능을 높이고 경량화를 이끄는 소재로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R&D 투자, 수요처 발굴 등 시장확대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번 한-독 네트워킹데이 개최를 통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는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한-독 경량소재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해 양국은 경량화 기술 및 소재개발 등에 대해 2025년까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독 경량기술 보유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박종수 회

장은 "탄소 융복합 소재는 경량화, 고강도 등 높은 기능성을 바탕으로 각 핵심산업에 확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재"라며 "탄소소재가 미래 산업의 기초 소재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방윤혁 원장은 "탄소산업 육성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무역장벽이 높은 탄소소재 선도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며, 이번 네트워킹 데이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인삼으로 여름나기

전북인삼농협, 더진한 홍삼정수삼 등 라이브커머스 특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은 초복을 이틀 앞둔 14일 오전 11시부터 농협전북본부 온라인지역센터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전북인삼으로 더운 여름나기' 특별 판매를 진행한다. 13일 밝혔다.

이번 진행되는 소포라이브에서는 홍삼으로 진하게 농축시킨 전북인삼농협의 더진한 홍삼정과 신선한 수삼을 세척해서 소포장으로 만든 '세척수삼'을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무료배송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모든 구매고객에게 레드비타민C 1병과 삼계탕재료 무료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신인성 조합장은 "여름철에 더위에 지칠수록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쉽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초복, 중복, 말복 등 북반구가 다가오고 있어 홍삼을 기력회복을 보양식으로 섭취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합인판매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인삼 쌀 등 우리 농축산물 소비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전북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 쌀 소비촉진운동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북중기청, 올 제2차 제조혁신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제2차 전북 제조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은 고도화서비스 바우처(7,000만원)와 지역대위자율형 바우처(5억8,700만원) 2-track으로 제조소기업 22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는 20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한다.

총 3가지(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을 5천만원 한도 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대위자율형 바우처는 지역별 산업특색과 경제현안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등을 지역 맞춤

형으로 설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 지역대위자율형 바우처는 지역주력산업과 전·후방 업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3가지(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6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을 5천만원 한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혁신플랫폼 누리집(<http://www.msniv.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도내 제조소기업 총 55개사(일반 37개사, 탄소중립 18개사)에 20억4,2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중기청 신재경 청장은 "이번 2차 혁신바우처 사업이 전북 주력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1차 모집 때와 같이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고객 사은행사를 열었다.

쌀 농가 돕기 위해 팔 걷었다

농협은행 전북, '쌀 소비 촉진' 대고객 사은행사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정경민)는 13일 쌀 공급 과잉,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가를 돕기 위해 대고객 '쌀 소비 촉진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쌀 소비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5,000만원 상당의 쌀(백미 1만4,000kg)을 도내 전 영업점 대고객 사은행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영업점 내점 고객의 상품가입 및 감사과제 사은행사 등에 전북 쌀을 활용함으로써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

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한편, 전북농협은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100만 포 소비촉진, 88월리지,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 등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정경민 본부장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쌀 소비 촉진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 감염병·안전사고 예방 '맞손'

농진청-질병청, 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촌 지역 주민 및 농업인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와 건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과 13일 질병관리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 의료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건강·안전 증진 등 현안에 대해 양 기관의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협력을 지속해 온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인 건강·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분석, 연구·교류, 공동 현안 대응 및 감시체계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쯤쯤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온 농업인 대



상 교육 및 홍보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기술지원 및 자료개발·보급 등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 건강 및 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류 △농촌지역 주민 결핵 검진 확대 △국가 손상 예방관리 △매개체 감염병 감시 및 예방 등 농업인 및 농촌지역 주민 건강 전반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작업 사고, 질병에 취약한 농업인의 건강·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농업인 안전관리 교육, 현장 기술지원 등의 지원과 대응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진드기·모기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하고, 고령화 등 농촌지역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매개체 감염병, 결핵 등 농촌지역에 취약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주민 및 농업인의 감염병 예방관리와 건강·안전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제도화 위한 공간정보 협업 모델 만들어야”

LX공간정보정책자문위서 데이터 품질확보 등 주문

정부와 공공이 제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협업 모델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지난 1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상호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공간정보정책자문위원회 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전문가 제언이 쏟아진 이날 회의에서 오부환 LX공간기획부 부장, 이승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디지털국토전략, 김태훈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술연구소 총괄책임이 기관별 주요 사업 현황을 자문위원회에 공유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정부와 공공이 축적해온 데이터를 이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앞서 소개된 LIX 위업을 감지하는 서비스를 제도화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된 중요한 협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상만 (주)로프랜드 사업본부 전무는 "2년도 국내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를 보면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10억, 종사자수는 12명에 그칠 정도로 영세하다"면서 "LX공사가 EX·I와 같이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민간이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환경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W 품질 시대에서 데이터 품질 시대로 전환된 만큼 양질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지속적 품질관리·표준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려면 정부와 공공이 분업별 공간정보 기반의 양질의 데이터 제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또 이 데이터가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포털 등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철 대구대 교수는 "드론이 10년 전에 도입됐는데,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나종민 주소산업협회

회 회장은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에 대해 적극 투자하고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훈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술연구소 총괄책임은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 생태계를 바꾸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EDA(반도체 설계자동화)를 때문"이라면서 "오늘 모인 3곳의 공공기관이 전문가 제언을 반영해 노력한다면 공간정보 분야의 EDA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정렬 사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출범 이래 공간정보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적기 성장장을 넘어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정부와 함께 삼각관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